

인권위 자료집

인권 자료실	
등기일	분류기호
8	B11

B 11-33

관산  
관산시  
전

cpk1.14

고문·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

198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주소/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 전화/764-0203

1989년 2월 10일 발행

cpk1.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 자료집 ⑧

고문·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발간사

세계인권선언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 위원회는 88년 12월 19일 기독교회 관 대강당에서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가 다시 한번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재확인하는 때에 우리는 이같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집회에서는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도 고문과 폭력이 집권자들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5공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폭력을 고발하면서, 이를 기필코 민중의 힘으로 추방하고 말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 자료집은 이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럽고 쓰라린 고문의 경험들을 증언했던 아홉 분의 이야기를 초록한 것이다. 악명높은 제 5공화국 치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과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해 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인권회복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솟구치는 힘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할 수 있었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이 자료집이 이 땅 위에서 고문과 폭력을 근절하고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과정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1989년 2월 일  
위원장 박종기



●차례●

김대중	5
이태복	7
김영애	12
박형규	15
류시민	17
김근태	21
권인숙	29
김문수	33
김상모	40
부록·의문사 성명서 농성일지	45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됨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구속자 석방의 문제이다. 이 구속자 석방문제를 가지고 본인은 지난 5월 이래 노태우 대통령 혹은 정부와 계속적으로 접촉, 설득하고 때로는 부탁도 했다.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은 국법을 어긴 공산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측에서는 이 사람들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한 것이며, 모든 것이 계획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석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은 노태우 씨에게 제 6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과거의 청산과 민주화,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청산에 있어서는 첫째, 구속자 석방·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며 둘째, 광주문제의 명예로운 해결, 세째는 전두환 씨의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는 철저히 파헤쳐져야 하며, 민주화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의 악법을 개폐하고, 지방자치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고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국민과 민주인사들의 투쟁의 결과, 또 노태우 정권이 궁지에 몰려 하나의 탈출수단으로 이 구속자 석방의 문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수배해제해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만족할 상태가 아니므로 끝까지 노력할 생각이다. 우



리는 고문 없는 나라, 억울하게 죄인으로 조작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부가 재편되었고, 언론도 과거보다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국보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집시법, 안전기획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간첩으로 조작되거나 용공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며 동시에 의문사의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갈 것이다. 최근에도 우리당의 5공비리 특별위원회에 의문사, 삼청교육대, 불교교육법난, 제일교회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단순히 헌법상이 아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세계인권선언일 4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도 이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국민의 자유로운 시위권, 집회권이 보장되지 않고, 악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양심의 이름하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 규탄한다. 다가오는 89년은 이 땅에서 인권이 회복되고 고문과 폭력이 완전히 추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 이태복

전광민사 사장, 1981년 '전노련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무기선고로 복역중 최근 석방됨.

우선 의문사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고문대에서 돌아가신 민주화운동의 투사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신열사들의 가족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

나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장기적인 정권의 기반을 위해 자신들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고 이 땅의 민주화운동을 공산좌경분자들의 폭력혁명의 일환으로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노련 사건의 이태복이다.

나는 81년 6월 10일 당시에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혜화동 로터리에서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갔다. 당시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확실히 알기 위해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500 정도 세었을 때 언덕을 넘어가기에 약수동 언덕으로 생각하고 보안대로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남영동이였다. 남영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구조의 건물로 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아니었다. 무조건 수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꿈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물어보니 꿈을 꼬뮤니스트의 약자라고 했다. 그래서 수괴라는 것과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기 전에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3조에 반국가단체의 수괴라는 것과 우리의 민주화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을 공산분자의 폭력혁명기도로 조작하기 위해 나에게 강요되었던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타작반이 들어왔는데(아마도 고문팀이라고 생각되는) 끌고 가더니 팬티까지 모두 벗겼다. 그들은 품이고 수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든가 아니면 고문당해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고문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그 도중에도 구타는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고문 과정에서 항복할 의사가 있으면 발가락을 아래위로 까딱거리고, 항복할 의사가 없으면 좌우로 흔들라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그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문대에 묶었는데 바로 칠성판이라는 시체를 올려놓는 판이다. 판 자체는 보통 허리 높이로 된 데에 다섯 군데 벨트가 장치된 것이다.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다섯 군데를 묶게 되어 있는데 흔히 차에 장치되어 있는 안전벨트처럼 한번 단단히 묶으면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묶여서 처음 들어간 방이 4~5평 내지 5~6평 되는 방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 말로는 국립호텔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방처럼 목욕탕, 침대, 변기 등이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목욕탕 부분이 전부 빨간 타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이 섬뜩한데 목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고 고문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칠성판에 묶여 발쪽을 들어올리면 머리부분이 그대로 목욕탕 안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전에도 몇 차례 물고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공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본능적인 저항감 때문에 몸부림 치다가 먹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다. 한참 먹고 나면 다시 끌어내어 구타하면서 그들이 조작하려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이 자식들이 박정희 각하는 18년간 하다 말았지만 우리 전두환 각하는 앞으로 20년은 더 해 먹을건데 계엄령 해제되자마자 이 자식들이 벌써부터 데모질 하느냐”는 것이다.

이 당시 계엄해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특히 81년 초가 되면서 우리 운동권의 흐름이 78년 시기 즉,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해서 싸웠던 운동 수준으로 역량이 회복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광주학살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전두환 군부독재의 부도덕적인 죄악성을 국민대중에게 폭로했던 것이다.

전기고문했던 사람은 지금은 경기도 대공분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를 전기고문했던 사람은 경관 2명, 경위 2명, 경사 2명으로 모두 6명이 한팀이었다. 이번에 구속되었던 김수현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 나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전기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한 공포감으로 곧 굴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한번 당하고 나니 전기고문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한번 화끈한 경험을 겪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요령이 생기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이 돌리기 시작한다고 생각될 때 같이 고향을 지르는 것이다. 이것은 공포감을 더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공포와 싸우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주로 지르는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 하느님 등이다. 이러한 고향을 지르면 그들은 “이 새끼야, 니 에미 애비가 여기 잡혀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살려주겠냐. 이 자식이 하느님 새끼가 어디 있냐. 이 자식 이거 순 엉터리구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아무리 네가 외쳐봐도 하느님은 대답이 없어. 하느님 같은 새끼 있으며 와서 얘기해 보라 그래. 그럼 내가 살려주겠어”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문을 하다 죽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말도 있었다.

내가 항복을 하지 않자, 그들은 “네가 여기서 죽으면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대로 묶어 돌맹이를 달아서 서해바다에다 집어던지면 네가 여기 들어온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또 월북을 기도하려고 해서 뒤에서 월북하려는 것을 쏘았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현장에 기자를 부르면 철조망 타고 올라가려는 걸 뒤에서 쏘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가 그 점에 대해 의문을 갖겠냐”라고 말하면서 돌맹이를 달아서 바다에 집어던지겠다고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쇼까지 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의문사의 진상이 어떤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살아 남았고 전기고문 이후로도 여러가지 고문이 많았으나 구체적인 고문방법에 대한 증언은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두환 군사독재가 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만적인 고문을 통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전두환 정권



의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권력과 독점제  
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테러탄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고문과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소리높이 외치는 것이 필요하  
며, 고문과정에 대한 진상을 국민대중에게 널리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타도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민족자존, 통일된 나라  
의 건설을 위한 싸움의 과정 없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고문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문한 목적은 반국가단체로 기소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작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물증이 전혀 없이 민주화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나의 사고와 활동내용들을 끌어내어 고문  
을 통해 각본대로 조작했던 것이다. 내가 소속되었던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연  
맹이었는데 이 단체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되지 않았다. 반국가단  
체로 만든 것은 전국민주학생연맹이었다. 조사과정에서도 집시법 위반의 조  
서와 국가보안법 위반의 조서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 진실이라면 하나의 조  
서만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조작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고문과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국보법의 철폐와,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의 폐지로 진정으  
로 고문과 인권의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나는 60여 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차례 항복을 했다. 고문의 강도가 높  
아지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는 언제나 항복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좌절을 가졌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각오했던 투사가 고문에 의해 굴복을 했  
다는 좌절감이었다. 징역을 사는 기간 동안 어떻게 굴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투쟁하는 사람의 도덕관으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괴로움인 것과 동시에 운동권의 괴로움이었다. 나는 7년 4

개월의 징역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목숨을 바친 분신열사가 19명에 달하고 또  
의문사한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생활에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루빨리 의문사한 사람들의 진상이 낱알이 공개되어 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동시에 그러한 폭로와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의 민주화운동의 강  
한 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 김영애

치악산서점 경영,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구속

사실 이 자리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주도했던 문부식 씨나 김현장 씨가 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은 차가운 감옥 속에 있고 또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여성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1981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세계에서 아직 양키고 흠이 외쳐지지 않았던 때에 한국에서 젊은 기독교 신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다. 당시는 미국에 대해 반미라는 구호 자체도 잘 몰랐고, 또 감히 외칠 수도 없는 삼엄한 상황이었다. 또 당시는 5월 민주화 항쟁 이후 군부독재정권에 대해 간헐적인 항거만이 있었던 때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본질을 보다 올바르게 꿰뚫어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대미관계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정부는 모든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복괴노선동조, 한미이간, 좌경불순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우리를 매도하기 시작했다. 공식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리이러한 재판이 몇 시에 있었다 정도로만 사회면 뒷구석에 단 몇 줄로 보도되었다. 그것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악랄한 고문이 폭로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폐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방화에 대한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

나는 4월 5일 원주에서 연행되었는데 최신부님, 찬복 선생님, 문길환 씨는

먼저 연행이 되었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눈을 가린 채 몇 번 차를 갈아타고 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도착해서 처음 들어간 방에는 욕조와 변기, 불박이식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건장한 남자가 3명, 그리고 한 명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아무말 없이 이틀동안 잠을 깨우지 않고 이를 후에 자기들이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때 방화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질문은 한 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사회주의자로 물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신부님과 기독교 신학생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물 수는 없었다. 나의 경우는 단순한 범인 은닉, 범인 도피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각본을 만들기에 바빴다.

나와 모든 여학생들은 가장 수치심을 느끼도록 옷을 벗기운 채 팬티 하나만 입고 물고문을 당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죽겠는가 하는 질문만을 되풀이하여 들었다. 그곳에서 종철이가 죽었는데 목에 걸려서 숨이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욕조가 목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축축하게 젖은 담요로 우리를 뽕뽕 만 채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구타했다. 젖은 담요로 마는 것은 속으로는 골병이 들지만 겉에는 멍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심지어는 팬티만 입힌 채 배에 올라앉아 물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코에 물을 붓는 고문도 했다.

서울에서 조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4월 8일에 이송되었다.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자수형식으로 연행되었고 그 당시 부산의 모든 정보기관 사람들은 흑독하게 추궁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버리고 있었다. 그곳에 가서는 나와 모든 여학생들이 팬티만 입은 채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손바닥을 땅에 대게 하고는 구둣발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돌리는 고문을 당했다. 말초신경을 하나하나 자극시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도 시멘트 바닥에 댄 채 구둣발로 갈아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거의 팬티만 입힌 채 무릎에 곤봉을 끼워놓고 의자 위에 꿰어 앉히고 구둣발로 무릎을 밟는 고문도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죽겠는가 하는 질문만을 되



풀이하였다.

김현장 씨나 문부식 군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이다. 뒷수갑을 채운 채 무릎에 곤봉을 끼우고 팔에 막대를 끼워 의자 사이에 끼우고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와사비나 겨자 물을 코에 붓는 것이 바로 통닭구이다. 그리고 또 뒷수갑을 채운 채 앞가슴을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김현장 씨의 경우는 각혈을 해서 2년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죽으로 살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미국에 대해 옹정하려 했고 그 본질을 파헤치려 했던 사건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던 것이다. 우리는 종철군이 우리도 고문을 당하고 삶과 죽음의 길을 왔다갔다 했던 그곳에서 숨겨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열하고 통곡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고문을 폭로하고 고문을 이겨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철군이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남영동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고문이 이 땅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문의 원인이 되는 반민주악법의 완전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박형규

전기장 총회장, 1984년 보안사요원과 일부 반  
대파 교인들에 의한 '서울제일교회 폭력사건'  
으로 현재까지 증부서 앞에서 노상예배를 드  
리고 있음.

20분의 시간이 있으나 10정도로 줄이려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많고, 또 직접 당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감옥에 간 숫자로 말하면 6번이니 나보다 많이 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고문을 직접 당하지도 않았다. 제일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월간중앙 5월호에 기사가 있으므로 바깥에 있는 책을 가져가서 보시거나, 한겨레신문, 평화신문, 일요신문 등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보시기 바라고 73년 당시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으로 연행되었던 얘기를 하겠다.

당시 이 사건을 내란예비음모로 조작했던 저들은 무조건 이 사실을 시인하라 했고, 안하면 이태복 씨가 증언한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늙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 1년을 못살 것이다. 또 고문당하다 죽어도 자기들은 보고하고 바다에 버리면 그만이니 협력하라고 하였다. 저들은 나를 빨갱이로 조작하려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해야겠으니,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해, 이북에서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자금을 보내서 모스크바에서 W. C. C.로 보내고 다시 한국 N. C. C.로 보내져 박형규에게 와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자금으로 주고 운동을 시켜 좌경용공, 빨갱이 운동의 피수가 되었다고 자백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죽기는 싫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해졌다.

그래서 10분간 여유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다. 얼마를 잤는지 구뎃발로 깨우고 커피도 대접하고 말도 친절했다. 분실장



인가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르는 대로 자백서를 쓰라고 하였다. 자신들이 조작하려는 내용대로 공산주의 사상에 몰들어 김일성에게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못 쓰겠오 하니, 눈이 시퍼래 지며 말이 다르지 않느냐 했다. 내가 기도를 하니 못 쓰겠더라, 만약 내가 자백을 하면 N. C. C. 총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때부터 묵비권을 썼다.

그때부터 고문을 약간 당했는데 약 28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란 수염을 뜯는 것이었다. 수염 뜯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니 더러운 손가락을 입에 집어 넣었다. 깨물려고 하다가 목사가 손가락 깨물었다고, 폭력행사했다고 할까 봐 깨물지 못했으나 결국 그들이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를 빨갱이로 몰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보안사, 안기부, 경찰이 합심하여 교회의 내분을 조작한 것이다. 제일교회를 담당했던 폭력배는 조동화라는 사람인데 홍성규를 비롯하여 주로 목포 사람들이다. 아직도 내분조작은 계속되고 있고 제일교회는 노상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

지금 민주화가 되고 선거가 있고, 5공비리·광주사태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 우리를 고문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 그저 형식적으로 민주화하는 체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고문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의문사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법의 개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한다. 내가 목사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한번 모든 민중을 위하고 노동자·농민을 위한 사람은 모두 빨갱이로 생각하고, 가슴 속에 새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을 하거나 정부의 간부가 돼서는 안된다. 물론 여소야대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해야만 우리의 많은 억울하게 죽은 동지들의 원혼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 류시민

전 서울대학생회 간부, 자신의 경험으로 1984  
년을 전후한 '강제징집'으로 6명이 군대에서  
사망한 사건을 증언.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문 일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여러가지 피해를 입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숨을 잃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한한다.

이것은 녹화사업과 강제징집에 관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 자신이 강제징집으로 군에 입대했었고 또 33개월 동안 전방철책 속에서 근무를 했었고 녹화사업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당하게 된 경위를 말하자면 73년에 서울대에 입학하여 80년 5월에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5월 17일 밤 학교에서 연행되어 지금 서대문에 있는 계엄사 합동수사부의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에서 조사를 받고 8월말 갑자기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와 있었다. 그래서 9월 2일 신체검사를 받는데 X-ray만 찍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9월 4일 아침에 입대하도록 갑종 1급의 현역 영장을 주었다. 그러니까 약 40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망을 생각해 보았으나 워낙 분위기가 살벌하여 그대로 입대하게 되었다.

입대하여 그해 12월까지 전방 소총수로 근무했었는데 다시 소위 빙고호텔이라고 불리우는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부림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그후 다시 다른 부대로 옮겨져 역시 철책선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감시는 받았으나 별일없이 지내다가 83년 5월이 제대에 정일이었는데, 3월 3



일 밤에 갑자기 보안부대에서 차가 왔다. 그렇게 끌려간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 퇴계로 3가 대한극장 있는 쪽의 진양아파트 6층 624호실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약 15일 동안 대학생들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지역보안부대를 걸쳐 부대에 복귀했다.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슨 목적의 조사였는지는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제대를 13일 앞두고 4월 23일에 사단에서 휴가증을 주고 서울 가서 연락해 보라고 전화번호를 주는 것이었다. 전화를 해 보니 그곳이 바로 퇴계로 뒤에 있는 보안사 녹화팀 본실이었다. 그곳에서 뿌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어렵곳이 녹화사업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종합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80년대 첫 강제징집의 경우였는데, 80년 9월 4일 64명이 갑자기 입대를 하게 되고 그 후 계속적으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지면서 83년 초에는 약 500명 정도가 강제징집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던 동부전선의 7사단에도 약 99명이 소위 말하는 특수학적변경자로 강제징집된 사람들이었는데 병적 기록표에 빨간 도장이 찍히고 특수관리된다. A급은 한 달에 2번, B·C급은 한 달에 1번씩 근무부대에서 보안대로 동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지·면회·내무생활을 일일이 감시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제대를 하게 되면 다시 데모를 할테니까, 83년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지역보안대에서 그 지역 학생운동 출신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사하고 고문을 하여 뿌락치활동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결정된 것은 82년 하반기였다. 이 안의 제안자는 후에 보안사령부 녹화사업 심사과장을 한 바 있는 서이남 중령이다. 이 사람이 브리핑하면서 상부에 제안하여 결정이 되면서 보안사령관이 직접 육·해·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석사장교들 가운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을 담당할 팀과 중앙에 A급 담당팀을 내가 알기로는 과천과 진양아파트에 두고 나머지 지역보안대부대에 장교를 파견했다. 이렇게 하여 전군에 걸쳐 있는 500여 명의 특수학적 변경자를 녹화하기 위한 팀이 편성된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재대 후에 골치아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즉 A급을 서울로 불러 다시 사상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시절부터 입대할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다 조사하는 것

이다.

이 사업은 83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병역단축혜택을 받아 83년 3월에 제대에정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었고 나는 5월이 제대 예정이었기 때문에 3월 초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알지 못했으나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의 학생에 관한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82년 7월에 연세대 정성희 군, 83년 4월 30일에 성대 이윤성 군, 83년 6월에 고대 김두황, 83년 7월에 한대 한영현, 8월에 동대 최원순, 그해 12월에 서울대 한희철, 이렇게 해서 83년 한해 동안 한두 달 사이에 연쇄적으로 강제징집당한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주로 사고사, 자살 이런 것들로 위장되어. 나의 경우에는 제대가 입박해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피해 나갈 수 있었으나, 군대생활이 25개월 내지 30개월이나 남아 있고, 또 자기가 관련된 사건이 아직 수사중인 사람들, 즉 경찰 유치장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온 학생들은 미진한 수사의 보안을 위해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왜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을 하자면 군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군의 수뇌부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길러진 자들이다. 일본 관동군, 일본 육사를 나오고 만주봉천군관학교를 나오고, 소련 비행단을 나온 자들이 2차 대전 직후 미군정에 들어서면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 미군정에 기용되면서 최초의 한국군대를 창설하며 수뇌부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특권행사를 했던 자들이 재기용되면서 경찰을 창설하고, 경찰의 수뇌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자들은 우리민족 내부에서 생긴 자들이 아니고,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훈련된 사람들이다. 우리민족 내부에서 보자면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밖에서 사람몸에 들어온 중금속 같은 자들인 것이다. 이자들이 일본놈들로부터 고문기술을 배워 놓았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금의 군대라는 것은 일본 관동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 일본 관동군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따라서 군대 내부의 질서도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아



니고, 강압, 폭력, 협박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군대이다——군 내부에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군대에 오기 전에 어떤 민주주의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군생활에서도 어떤 민주주의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군대생활을 한다. 이런 군대이기 때문에 현 우리 군대의 파쇼적 질서 자체가 인간을 억압한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입대하면 완전히 고립된다. 수사기관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할 때에도, 또 감옥생활을 할 때에도 동지를 만날 수 있고 통방이라도 해서 얘기할 수 있고, 가족과 면회라도 해서 바깥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군대라는 것은 처음에 입대했을 때 자기 내무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상급자이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린치를 당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보안대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고 있고 언제 보안대에 끌려가서 어떤 위해를 받을지 모른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처럼 사고가 생겼을 때 합법절차를 밟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죽으면 군대에서 발표해 버리면 그만이고 어떤 언론기관도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

말하자면 특수학적변동자, 즉 강제징집자들은 그 자체가 폭력집단이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있을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인 군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을 탄압하고, 구테타를 하고 폭력을 하고 용공조작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속으로, 자기 혼자 고립된 채 전혀 낯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감독자이고 자기를 구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어느날 갑자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에 입대했을 때 30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계대할 때까지의 세월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조사받는다든가, 혹은 아직도 수배되어 잡히지 않은 동료, 동지들의 거처나 정보를 요구받았다.

##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1985년 '민주위사건' 배후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함. 최  
근 고문경관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민족, 이 사회 내부에 있는 정치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폭로하고 인간다운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겠다.

본인은 1985년 9월 4일 서부경찰서에서 구류를 살고 있었고 그날은 구류의 마지막 날이었다. 민청련 의장을 2년간 하다가 8월 10일 임기를 마친 나는 '이제부터는 해방되는구나. 당분간 이 지긋지긋한 구류를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날 새벽 5시 반 유치장의 문이 열렸다. 나는 이렇게 일찍 나서게 해주는 그들의 처사에 대해서 노마와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유치장을 나서자마자 내 앞에는 남영동 요원이었던 김영두와 최상남을 비롯한 7, 8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김근태 씨죠? 가보실 데가 있소"라고 했고 나는 새벽의 그 분위기로 봐서 이것이 즉각 구속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속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고,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지만, 왜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어딘지 한번 가봅시다"했다. 포니 승용차에 타자 내 왼쪽에 있던 최상남이 잠바를 벗어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바닥에 짓눌렀다. 이럴 때 명백히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 기가 죽고, 다른 한편 '구류를 살던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봤지만 남영동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이유를 정확하



게 떠올릴 수 없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남영동 515호실이었는데 이곳은 이른바 VIP실이라고 해서 대단히 공간이 넓은 곳이다. 그 안에는 큰 침대와 불박이 책상 하나, 이동할 수 있는 책상 하나, 그리고 양변기가 있는 커다란 목욕탕이 있다. 이 VIP실에 들어가자마자 실무책임자였던 백남운과 김수현은 “경찰에서는 진술거부를 잘 한다지?” 하며 여기서도 진술거부를 할지냐고 협박했다. 나는 책임있는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들의 협박과 공갈에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매우 두렵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긴 했지만 내 의지가 살아 있는 한, 내 정신이 살아 있는 한 버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준비된 물고문으로 넘어갔다. 물고문 할 때는 팬티만 남기고 나머지를 벗긴 다음 온 몸을 담요로 둘둘 싸고 눈을 밴드 또는 반창고로 가린다.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결박한 다음 입과 코에 두꺼운 수건을 덮는다. 그리고 지체없이 수도 샤워꼭지와 물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쏟아붓기 시작한다. 이때 쏟아지는 물은 화살, 총탄처럼 퍼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수건을 통해 들어오는 물은 소량의 공기를 동반하게 된다. 소량의 공기가 들어오므로써 바로 질식하게 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이 물 속에 빠져 있을 때는 5분 내지 10분 정도면 질식될 것이다. 그런데 고문시에는 소량의 공기 때문에 질식되는 시간이 연장된다. 질식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물 속에 빠져 고통스럽고 공포에 빠지는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고문자들은 매우 중요한 목표로 한다.

나는 고문대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그리고 고문대 위에서 ‘견딘다, 견딜 수 있다, 견뎌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의지는 동요되고 ‘이 고문대에서 내려간 다음 저항하면 되는 게 아닌가’ ‘고문대에서는 항복한다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우선 이 고비를 넘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쪽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에 대한 이런 말이 고통 앞에서, 공포 앞에서 허물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들이 요구하는 항복을,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길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과 항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리고 양쪽에서 고문자들이 잡고 있는 머리를 아래위로 약간씩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9월 4일 두 차례의 물고문을 받았다. 고문대 위에서 물을 때는 항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고문대 위에서 내려와서도 진술거부를 할 수 있는 의지는 깨졌다. 그러나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긍하고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튿날인 9월 5일부터는 전기고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남영동에서 전기고문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이 사람은 남민전사건부터 전노련사건, 그리고 민청련사건에 이르기까지 전기고문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원됐었다. 이자의 이름은 지금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하는 이근안이다. 남영동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이자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지 않던 나는 근래 그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전기고문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만 한다.

전기고문을 할 때 팬티를 벗긴다. 팬티를 벗기는 이유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기고문을 잘못하면 사타구니가 파열되어 피가 흐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피가 팬티에 묻게 될 경우 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고문자들은 팬티를 벗긴다고 한다. 전기고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온 몸에 물을 쏟아붓고 물고문을 한다. 물고문을 하는 이유는 고문의 효과, 물고문과 불고문을 상승적으로 효과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충격으로부터 오는 전기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고문자들이 얘기했다. 전기고문을 시작할 때 쬐으면 머리에 잔뜩 물을 부어 놓는다. 그러나 전기고문을 어느 정도 받다보면 머리에 부어 났던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린다. 한편 담요에 둘둘 말린 채 온 몸을 비틀고 용트림치면서 그 공포와 고통을 못견뎌하다 보면 담요 안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된다. 그러면서도 머리에 부었던 물은 완전히 말라버린다. 이것이 전기고문의 결과라 생각하는데 전기고문을 받으면서 엄습해왔던 고통과 깨질 것같은 머리 아픔, 이런 것이 감옥에 있는 3년 동안 내내 계속됐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오는 날이 되면 그때의 고통의 새롭게 되살아난다.

전기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비명,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버틴다.



신음소리, 비명을 지르게 되면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빨로 혀를 짹 깨물고 '신음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내가 지더라도 곧바로 저서는 안된다' 하면서 버틴다. 그러면 혀를 깨물어 자결을 기도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며 혀를 빼라고 한다. 이 전류는 발에 연결되어 있는 도선을 통해서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길고 또 짧게 번갈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노리는 것은 고통과 더불어 사람의 와해이다. 의지의 붕괴이다. 저들은 고문하는 이유를 '의지를 와해시키고 체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기고문을 받게 되면 거의 누구나 예외없이 비명을 지르게 된다. 그것은 외마디 비명소리이다. 이런 비명을 몇 차례 지르고 나면 목이 완전히 잠긴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고문자들은 이때 무슨 약을 몇 차례 먹이려 한다. 완전히 목이 잠겨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 고문자들은 한편 답답해한다. 그 이유는 고문대 위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각본을 완전무결하게 읽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벼락공부를 많이 했는데 고문대 위에서같이 공부가 잘 되는 것은 내 평생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만 읽어주면 그것이 십분정도 달하는 길이라도 정확히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다 외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자들은 그 복습을 반복,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는 계속 반복케 함으로써 정서적 불안이 오게 되고 그것을 파악해서 검찰이나 법정에서의 검사가 추궁해올 때 동요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과학적인 고문의 전문적인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도 부슬비가 내렸다. 그날 나는 어떠한 고문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쓰고 또 보여주는 것을 빼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어디선가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비명은 남자의 목소리에서 여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사이사이 고문자의 험박과 공갈소리가 나즈막히 들려왔다. 나는 그 비명과 신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끌려온 학생들의 비명일 것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껴안을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리다 그치면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었다. '이제 또다시 나에게 고문이 닥쳐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서 고문을 많이 받았

는데 오늘 저녁은 좀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내게 금방 고문이 닥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것이 어린 학생들이 당하는 비참한 전기고문이라는 것을 추측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아픔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내 가슴 속에 담아낼 수가 없었다.

나는 이날의 내 마음의 붕괴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아주 깊게 패인 정신적 상처의 하나이다. 나는 마침내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결국 흔들리고 말았다. 그래서 전기고문을 받고 고문대 위에서 내려오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고문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개처럼 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인정하겠다. 대신 고문없이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고문자들은 "너 김근태 이새끼 끝까지 반항해. 살려달라 그래도 할까말까 하는데 죽여달라?" 그래서 죽여달라 해서 또다시 고문을 당했다. 물론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고문을 받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생사의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아직은 멀쩡했던 이성과 운동가로서의 자존심이 야수 같은 고문자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때 밖에서 광주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1985년 7, 8월에는 학원안정법의 강행과 그것의 철폐를 둘러싸고 매우 날카롭게 싸움이 전개될 때였다. 그리고 잠시 유보되었을 때 나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는 고문대 위에 올라가면서도 이것을 험박일거라 생각했다. 그 한두 차례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영영 계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확신했었다. 이것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넘어가면서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외란된 말이지만 증견 활동가로서 밖에서 활동하던 김근태에게 이렇다면 이것은 학생들에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밖에서는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이 국민대중과 더불어 전두환 군사독재 세력과 총체적으로 대결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1984년 5월 14일 민청련 지도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망월동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하얀 팻말이 기억났다. 4년이 지난 그날까지, 죽은 지 만 4년이 지난 그날까지 몇 구의 시신은 지



문이 지워진 채 죽은 다음에도 누구인가 밝혀지지 않은 시체 번호 몇 번으로 기억되었고 나는 그 앞에서 목놓아 통곡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티면 정말로 죽겠구나. 밖에서 광주사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면 이 죽음은 어쩌면 서해바다 속으로 쳐넣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우 쓸쓸해졌고 '그렇게 죽게 되면 김근태에 대한 추도식 한 차례도 아무데서도 열 수 없겠구나'하는 매우 이상하고 절망적인 그리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내 나는 저들의 요구와 각본대로 손도장을 찍고 두손 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전두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배후인물이 되었다.

서울 구치소에 넘어가서 나는 한두 달 동안 틈만 나면 잤다. 그런데 실제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반쯤 잠자고 반은 늘 깨어 있었다. 나는 그때가 나 자신의 위기였다고 생각한다. 패배했다는 수치심,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끝까지 옹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시들어가게 했다. 어쩌면 그때가 생사의 갈림길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패배했다. 분명히 졌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생명의 불꽃이 다시 꺼져버린다면 이것은 두번의 패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 옥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위안으로서 '그래 나는 패배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붙잡자. 그 자그마한 밧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 진술거부를 관철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끈을 잡고 감옥에서 옥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6월 30일 나는 3년 가까이 살던 감옥에서 나왔다. 나온 후 1985년 10월 김근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을 때의 제도매체에 실렸던 사진들을 일일이 찾아봤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영남없는 간첩의 모습이었다. 김근태는 누가 봐도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눈은 썩 들어가고 광대뼈가 불썩 나오고 머리는 산발한 채 부시시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도는 그런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22일 동안 고문을 받고 검찰로 송치되기 바로 직전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

경동의 구멍이 송송 뚫린 벽에 엉겨주춤 기대서 찍은 사진이다. 이것은 김근태의 가면에 불과하다. 이것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군사독재의 죽음의 정체가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박정희 치하와 전두환 치하에서 이른바 간첩단 일망타진 운운하며 신문에 발표되었던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이 사람들 분위기가 어쩐지 음산하구나, 간첩들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회한을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또는 남북어부라 해서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못지않은 고문을 받고 처참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벽에 엉겨주춤 기대어 찍었던 사진을 저들은 제도매체를 통해서 선전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감옥에 다녀오면 사람들이 강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 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전두환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장세동이 5공비리 청문회에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TV를 노려보며 증언을 할 때, 나도 그것을 잘 들여다 봤다. 그런데 장세동 일당이 몰락하는 세력이고, TV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성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장세동의 부릅뜬 눈을 마주 쳐다볼 수 있는 심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이성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위협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처음엔 비스듬히 서서 보았다.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되지 하며 바로 세웠다.

그렇다. 고문을 하는 이유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민주화운동세력을 동요시킬 뿐 아니라 고문당한 사람, 즉 국민대중 속에 고문자들은 승진하고 영전하는 반면 고문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대중의 가슴 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사독재가 노리고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통치방법인 것이다. 지금 입만 병긋하면 민주화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시기 우리보고 달걀로 바위를 깰 수 있느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민주화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제도매체들도 떠들고 있다. 민주화가 된 것인가? 민주화는 의심스럽다.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번 나서지 않는다면 지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틀림없이 또다시 암울하고 어둡침침한 역사로 반전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가슴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는 그래서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대중이 끝없이 철폐를 요구하는 안기부와 보안사, 남영동 대공분실을 포함한 유령같은 존재를 지금도 철통같이 방어하기 때문이다. 남영동을 홍은동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대중 속에 잠복해 있는 이 두려움은 언제나 군사독재에 의해서 유령으로 커지면서 또다시 눈을 내리깔고 길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월로 우리를 다시 쳐넣을지도 모르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시점에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폭력집단이 국민대중의 가슴 속에 있는 공포를 언제나 작동시키는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그리고 집시법에 대해 변죽만 울리려 한다.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을 먹고 사는 안기부와 보안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보법과 사회안전법, 집시법을 법적,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군사독재의 절대적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국보법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주장했고 밝혀졌다. 이것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외교라며 저희들은 너나할것 없이 북한에도 가고, 중국, 소련에도 가면서 정말로 이 땅의 민족화해와 민족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선별적, 차별적으로 국보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위기가 온다면 가차없이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을 발동시켜 또다시 탄압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고문과 폭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 마침내 이 땅에서 군사권력이 총체적으로 퇴각, 패망하고 민중연합세력이 이 땅에 참다운 민주세력의 권력을 창출할 때만이 폭력과 인간에 대한 비열할 가혹행위, 고문행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을 마친다.

## 권인숙

노동운동 활동가 1986년 군사독재권력의 극악한 반윤리성을 드러낸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우리 선배 운동하신 분들이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당했던 고문의 얘기들, 강제징집의 얘기들 그리고 바로 전에 김근태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에 눌려 있다. 시종 옆에서 우시는 우종원 어머니, 이런 분들의 한의 무게에 눌려서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맨 처음 인권위원회에서 내게 이 집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을 때 나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석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또 한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맨 처음 법정에서 울며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졌다는 어떤 객관적인 것도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쌍한 권양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신이 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의 의미와 나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마음은 먹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

운동의 선배 형님들 얘기를 들으며 말 자체가 상당히 역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 운 좋은 고문희생자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내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당했던 고문의 양, 질 이런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는 많은 분들에게 동정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으며 함께 투쟁하시는 분들이 내 몸에 힘도 불어넣어 주었다. 사회적인 명예회복, 현 사법부의



구조하에서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재정신청의 문제들, 법정투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다른 희생자들과는 달리 유복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2년 반 동안 내가 내 자신에게 느꼈던 낭패감, 내가 과연 인간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한 형사 앞에 발가벗긴 채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의 성기 앞에서 무릎 꿇은 채로 울며 애걸했던 여성 수치심의 문제, 그리고 과연 내가 운동가일 수 있는가 한번도 제대로 대항이라도 해봤는가, 마지막 한 가지 선배의 집을 대취선 안된다 라는 하나에 매달려 나는 끊임없이 짐승도 됐다 애절한 소녀도 됐다 비명 한번 제대로 못지르고 저항 한번 못하는 그런 온순한 여성도 됐다. 이런 것들이 주는 상처 그리고 일차고문을 당할 때 멋모르고 한 친구의 이름을 대주었다는 것에서 오는 크나큰 자기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한 인간으로서 한 운동가로서 그리고 저항세력의 일부분으로서 '다시 섬'을 방해했었다.

오히려 교도소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와서 사회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성고문 당한 희생자니 뭐니 하면서 부천서 성고문과 내 이름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언론에 의해서 동정도 사도 회화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또 아무 내용도 없는 내게 무언가의 연설을 요구하고 만나줄 것을 요구했을 때 나는 당당하게 해나가기보다 사회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많았다. 성고문 사건을 당하고 교도소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온 과정들이 훨씬 힘들었다. 그 자체를 자신이 이겨내지 못했고 어떨 때 이런 사회적 짐을 혼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울면서 괜히 폭로했나보다 라는 후회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나는 이제까지의 나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같이 유복한 고문희생자가 그토록 이겨나가지 못하는 정신적 아픔과 사회적 고통, 그런 것들을 당당히 싸워나가는 우리 선배 운동가 형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유가족과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첫째, 내가 아는 분의 아버님으로 그분은 지금 사회안전법 폐지투쟁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고 계신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다리 한쪽 잘리신 아버님이 7년의 선고를 받았었는데 보안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껏 보안감호소에 계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제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성고문을 당했고, 공장에서 각 곳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너의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동정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서울대를 나온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범하고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언론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다." 실제로 나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이번에 사회안전법 폐지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졌다. 60, 70살 된 노인네들을 안보이데올로기의 불모로 잡아놓고 30년의 삶 아니 수십년의 삶을 썩히게 하는 인간들, 그것에 대해 보도조차 하지 않는 기성언론들, 단순히 그들의 사상이 옛날에 무엇이었는가 공산주의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만을 위에 놓고 그들이 인간임을, 그들이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싸우고 있음을, 그들이 한번도 제대로 이 땅에 발을 내딛어 보지 못한 처절한 희생자라는 것에 동정하지 않고 관심 기울이지 않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분과 감정과 동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싸고 편견에 가득찬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출소날짜 8개월 정도 남았을 그때 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겨울 수 없었다. 물론 몇일이라고 날짜를 받고 나니 교도소에서 하는 말대로 하루는 잘 가는데 날짜는 안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요즘도 가끔 생각을 해 본다. 그 병든 노인네들이 사상전향을 원하는 살벌한 검사의 판단 아래서 계속 2년마다 한번씩 보호감호처분을 받으며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나를 짓누른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인간선언대회에서 인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편견으로 봐서는 안되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가장 절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한다.

또한 폭력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지난 11월 19일 나는 신에전자에서 토론회가 있다는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다. 저녁 7시 40분쯤부터 시작했는데 그간 언론을 통해서 신에전자 얘기를 들었던 나는 그곳에 가서 평



장히 놀랐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노조원들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층은 완전히 시멘트 벽들을 쌓아 놨다. 전혀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그 안에 남아 있는 약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라인을 돌며 그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집회를 구경하다가는 사라졌다. 밖에서는 그날 따라 유난히 싸늘한 날씨 속에 맨바닥에 앉은 노동자들이 안에 있는 노동자도 같이 들으라며 토론회를 했었다. 그 회사는 자기노조원들을 단지 노조활동을 하려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사대와 전경을 동원해서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 과정에서는 실명한 사람도 있었고 어깨뼈 부러진 사람 등 다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구사대 폭력을 얘기하려 했을 때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다 들을 경황이 없을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지막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가 신에전자였는데 임금인상하자면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으냐”는데 나는 그날 안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밖의 찬바닥에 앉아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구사대폭력 자행하는 아버지가 웬말이나’를 외쳐대는—— 그 사장은 항상 노동자들에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했다 한다—— 노동자들을 보며 ‘아! 이것이야말로 폭력이다’라고 느꼈다. 한 기관원이 한 여성에게 자행했던 폭력 이상으로 이 땅에서는 수십만, 수천만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우리 민중들을 압살하는 공공연한 폭력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나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 얘기와 더불어 이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얘기를 마칠까 한다. 또한 나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피해자라는 늪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날 찾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고문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뻔뻔스럽게 자행되는 가진자들의 폭력 그리고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두들겨 패게 만드는 폭력 또한, 감옥에서 처절하게 늪어가는 우리 사회안전법 희생자들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싸움 속에서 군부독재정권이 타도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얘기를 마친다.

## 김문수

전 서노련 지도위원. 1986년 '5·3 인천사태'  
배후로 몰려 송파 보안대에서 고문당함.

86년 5·3인천집회가 있던 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노동운동연합관계자들은 그날 새벽 기관지 노동신문을 찾으러 인쇄소에 갔다가 보안사에 연행된 박정에 동지로부터 5월 6일 본인이 잡히기까지 모두 다 연행되었다.

5월 6일 당시 우리들은 잠실 아파트에 모여 서노련 편집부 6명이 모두 연행된 데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여 있었다. 그때 벨소리가 나 내다보니 머리를 짧게 깎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래 직감적으로 수사관임을 느낀 우리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여러가지 서류 등을 모두 태우기 시작했다. 한 30분간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는 망치 등을 동원해 문짝을 뜯으며 들어오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거기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격렬하게 반항했다. 그러나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없어진 뒤라 화가난 이들은 우리들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그때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 계속 도망다니다가 12시 넘어 제일 마지막으로 잡혔다. 당시 우리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주변 파출소 경찰은 물론 무술경관까지 동원되었다. 나는 그들 손에 잡힌 채 아파트 방에 끌려가 밧히고 맞고 한 후 걸음도 못올길 상태가 되어 세단에 태워졌다. 얼마 후 내가 내린 곳은 아주 조용하고 새소리가 나는 넓은 마당이었다. 그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10여 명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마구치는 바람에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알고 보니 그곳은 송파 보안대였다. 마당에서 반지하의 수사실로 끌려간 나는 그 수사실에서 서울대 학생들, 청계노조 간부들 및 서노련 관련 14명을 보았다.

수사관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와 이름을 쓰라고 하더니



곧바로 당시 수배를 받고 있던 서노련의 다른 동지들 이름을 대라고 하였다. 못대겠다고 하자 그들은 나를 발가벗겨 지하실로 업고 내려갔다. 그들이 잘 건지 못하는 나를 양쪽에서 부축해 끌고간 곳은 지하 2층의 평수가 좀 넓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이발소에 있는 의자보다 훨씬 큰 철제의자가 있고 그 밑에는 구멍이 뽕뽕 뚫린 철판이 깔려 있었다. 이런 장치는 물고문할 때 철제의자 밑에 물이 고이면 안되니까 아예 하수구를 만들어 놓는 등 고려를 한 것이다.

나는 철제의자에 앉혀진 후 빨래줄 같은 것으로 팔, 허리, 무릎 등 다 묶었다. 즉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철제의자에 붙들어 매여진 것이다. 이렇게 묶은 후 그들은 '자 이제 뭐하는지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나는 당시 송파 보안부대에 가기 전까지 남산 안기부에서 조사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해보고 또 빙고호텔, 남영동 등 여러 군데를 이미 많이 다녀왔다. 경찰서 유치장도 여러번 가서 두들겨 맞기도 해보고 다닐 만한 데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맞지도 않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있으니 그들은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맞아서 살이 다 터진 위에 몽둥이를 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되니까 그들은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물을 완전히 덮어 씌워 놓고 양손에 구리줄을 감은 후 멀리 떨어진 데서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짧게, 길게 해 나갔다. 그곳은 슬라이드스라는 조금 큰 가변기를 돌려대며 전기고문을 했다. 그런데 전기고문을 하며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알면 안되니까 한 열 다섯 명 정도 들어왔다. 그들은 들어와서 누가 치는지 모르게 사방에서 마구 때린 후 벽으로 짝 돌려 붙어서 스위치를 내렸다. 말하자면 무대 위에 내가 있는 셈으로 조명을 나만 비추고 나는 그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사방에서는 낄낄거리며 웃고 '이 새끼가 간첩보다 더 나쁜 놈이고 아주 악질이다' 등등 온갖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라고 고향도 지르고 광란을 연출한다. 그것은 나를 심정적으로 압박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압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견딜 도리가 없다. 그러면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떨 수밖에. 그런 상태에서 온 몸이 묶인 곳에서 살이 터져 피가 난다. 물을 이미 부어놓고 피가 흐르니까 온 몸이 전부 피범벅이

다. 그런데 그렇게 전기고문을 받아보니 자기몸이 다치는 것 외에는 그런대로 좀 견딜 만하다. 그래서 전기고문으로는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드럼통 반만한 크기의 통에 물을 가득 붓고 고추가루를 탄 다음 묶인 내 몸을 뒤로 젖혀 코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고추가루물을 부었다. 몸부림을 치면서 온 몸의 상처가 다 터진 나는 졸도해 버렸다. 그래서 다 불겠다고 하니 옷을 입혀 윗층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어 어물어물하니 다시 지하로 또 끌고 내려갔다. 다시 옷을 벗긴 후 전과 똑같이 고문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막대기로 성기 끝을 계속 때렸다.

그런 후 또 고추가루물 고문을 계속한 후 동료집을 대라며 움직일 수도 없는 나를 앰블런스에 태운 채 집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최대한 동지들이 피할 시간을 주려고 버틴 나는 앰블런스 안에서 뒷수갑이 채워진 채 얼굴에 전기봉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전기봉으로 찍고 때리고 하는 짓을 되풀이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다. 나는 운동을 하면서 동지들 사이의 의리를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해왔는데 사실 그것을 못지켰던 것이다. 그 이유는 몸의 한계를 내자신이 버티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저히 못참겠다고 생각한 나는 차라리 죽자고 결심한 후 그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 의자를 던져버렸다. 죽을 힘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반항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그들은 나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했는데 서노련사건 자체가 당시 신문을 다 냈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서노련을 만든 것이 북한이 김일성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이적단체를 만들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고통받는 이천만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서노련을 만들었지 김일성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자신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의 말로는 이것이 이적표현물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5·3인천집회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소요죄를 씌웠고 서노련에서 했던 여러가지 모임을 집시법 위반이라 하여 나는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 소요죄, 집시법 등 4가지 위반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열흘만에 송치된 나는 장안동 대공분실로 보내졌다. 장안동 대공분실은 남영동과 구조가 똑같으나 최신식 건물이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잠 안재우고, 했던 소리 또 하게 하고 쓴 거 또 쓰고..... 그러면서 18일간 조사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가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간 나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때부터 교도소 내에서 계속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교도소 내에서 찍힌 나는 그 안에서 무척 얻어맞았다. 특히 건대사건이 난 후에는 1천 3백여 명이 구속돼 도저히 질서를 잡을 방법이 없자 선제공격을 한 셈이었다. 교도소 내 보안과장이 돌아다니면서 패고 마루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계속 찼었다. 나는 그런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어 혀도 깨물어 보고 죽으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잘 안됐다.

교도소 내에서 또한 힘든 것은 사람을 묶어 놓는 것이다. 이를테면 포승인데 전신에 수갑을 채워 묶어 놓는다. 나는 어떤 고문보다 이 묶인 상태가 힘들다고 느꼈다. 나는 한 보름 가량 전신이 묶인 상태로 지낸 적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대소변 가리기가 힘들어져 자연 자기 몸에 그대로 배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때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은 다 사라지고 만다. 사실 보통 수사관에서는 아무리 고문을 하더라도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켜 부기를 댄다거나 안티플라민 맛사지로 명을 빼는등 상당히 인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도소는 이와 다르다. 한번 패고 나면 그뿐이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둔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대는 이후 검사의 취조나 재판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귀를 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 독재자들, 엄청난 폭력배들한테는 큰 압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징벌을 받고 난 뒤 나는 안양교도소로 다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는 상당히 새건물이라 그곳에는 특별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있었다.

이른바 안양특별사동으로서 땅 밑에 있는 그 방은 0.6평짜리이다. 나는 안양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넓이는 내 어깨가 들어차고 약간 남을 정도고 길이는 누우면 발끝에서 머리끝이 딱 맞는다. 그 방의 구조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사방 벽을 스티로폴을 사이에 집어넣은 후 베니어판을 대어 머리를 찜어 죽지 못하게 만들었다. 창도 없으니 햇빛도 없고 통풍도 안 되는 곳이었다. 나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 방에 있었다. 그곳 문은 3중인데 베니어판 뒤에 두겹 구멍 뚫린 백 그라이드판, 그 뒤 유리문, 철조망 이러 순으로 되어 있다. 또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을 다섯 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갑까지 차고 있고 모포 한 장 없이 있으려니 인간은 얼마나 추운 데서도 견딜 수 있는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묶여서도 견딜 수 있는건가를 알았다.

그러다가 후에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때 나는 보안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며 거부했던 항복을 하고 말았다. 나는 각서를 썼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잔벌면제로 징벌방에서 나온 나는 교도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70여 명의 재소자와 함께 옥중투쟁을 했다. 미리 정해 놓은 날짜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고향을 치며 일시에 문짝을 찌는 등 시위를 벌였다. 그때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 이 싸움을 했지만 내가 나이도 들고 평소에 많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또 끌려가서 묶였다. 이번에는 족수승이라고 하는 풀 매긴 밧줄에 포승당했다. 풀을 뻗뻗하게 먹인 밧줄로 손목을 묶는데 묶는 순간 손목에서 피가 나왔다. 풀을 먹인 거니까 손이 견딜 수 없었고 숨도 못 쉴 정도였다. 밧줄에는 물론 모포를 깔아놓았다. 혹시 포승을 하다가 다치면 그게 다 증거가 되니까 밧줄에 푹신푹신한 모포를 깔아놓은 것이다.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나는 모포 옆으로 조금 나온 얼굴을 바닥에 찜어댔다. 죽겠다고 머리를 계속 찜으니까 자해해서 죽으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못 죽게 한다고 머리에 투구를 씌웠다. 온 몸을 뒤에서 결박한데다 숨도 안 통하게 투구까지 덮어씌우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니 군인들이 마치 교도관인 양 와서는 군화발로 툭툭 차며 죽으라고 하였다. 그 후 목포에 갔을 때 교도관이 직접 하지 않고 주먹 센 사람들이 폭행했다. 그리고 다시 광주교도소로 갔다가 10월 3일 2년 5개월만에 나오게 된 것이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여러 사람을 보았다. 그중 자기 눈을 실로 꿰맨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보기 싫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흉터가 남아 있는 그들은 얼마나 교도소 안에서 당했으면 자기 눈을 꿰맸겠는가? 또 입을 꿰매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하면 군말 많다고 계속 때리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들은 일반사범들이다. 사실 시국사범 양심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약하다. 조금 맞고도 엄살 많이 부리고 하지만 일반폭력사범 등은 정말 강하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입을 꿰맨다. 말을 안하겠다며. 그러면 교도소측에서는 자해한다고 일축한다. 또 그사람들은 빨래줄이나 돌, 뽕죽한 것들은 가지고 자기 머리에 굶기도 하고 배에 굶기도 한다. 배에 그으면 벌어져서 창자까지 밖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교도관들은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상하지 말라고. 그러나 실제 얼마나 따갑겠는가? 그러면 팔짝팔짝 털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징역이다.

그런데 이런 징역을 195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는 분이 있다. 김선명 선생이라는 분은 51년부터 지금까지 빨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사람 죽인 일은 물론 남의 피 한방울 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26살 청년에 들어와서 64살 되는 지금까지 38년간 갇혀 있는 것이다. 그분이 언제 석방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38년간 면회, 편지는 물론 영치금 일원도 없다. 어머니 한 분도 빨갱이 아들 면회오면 자기도 빨갱이 물들 것 같고 탄압받고 싶지 않으니 오지 않는다. 그분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분이 나오는 날은 이 조국이 통일되는 날이다. 반면 김현희는 115명을 죽였고, 죽은 이들의 뼈마디 하나 못찾았지만 멀쩡하게 잘 돌아다닌다. 그런데 남의 피 한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사상에 대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8년간 징역을 살며 죽으면 나올까 조국이 통일되는 날 나올까 하고 있다. 나는 우리들이 겪은, 또 오늘 발표된 여러 선배님들, 동지들의 애절한 말씀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 특히 교도소 내의 문제, 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40주년 하는데 나는 이 40주년을 보며 교도소에서 38년간 살고 계시는 분을 생각한다. 40년 하면 긴 세월 같지만 38년을 담 속에서

살아온 분과 끝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분들을 생각하며 이분들이 모두 국민들의 따뜻한 품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해방된 조국에서 다함께 어우러져 살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 선생님들 꼭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들 또한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귀 열고 우리의 입 올바르게 말해 이런 분들 모두 다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꼭 돌을 던지고 크게 하지 않아도 우리 다함께 힘을 합치고 두 눈 부릅떠 지켜볼 때 그날이 꼭 온다고 확신한다.



## 김상모

의문사 유가족, 제 5 공화국 이후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35 가족과 함께 인권위에서 100일이  
넘게 농성중.

먼저 인권주관을 맞이해서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준 인권위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나는 기독교회관 307호 N. C. C. 인권위원회에서 64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의문사 유가족이다.

나는 짧게 의문사에 대해 이것이 의문사가 아니다 라는 것 두 가지 사례를 말하겠다. 먼저 대학에 입학한 지 세 달 동안 시위를 하다가 무려 세 번씩 경찰에 붙잡혀 구류를 살고 나온 한 학생이 있었다. 하루는 자취방에서 시험공부를 하는데, 서울대생을 찾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그 후 6일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70kg이나 되는 시멘트 덩어리를 네 군데 몸에 꿰뚫어 매단 채 바다 속에서 스쿠버다이빙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70kg이나 되는 시멘트 덩어리를 네 군데 자기 몸에 철사줄로 묶고 17m나 바다를 헤엄쳐 가서 빠져 죽는가? 그렇게 자살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제 자살 같은가? 타살 같은가?

다음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지 10개월이 지난 한 아버지에게 어느날 군에 간 자식이 총으로 자살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 속에서 부랴부랴 자식이 자살했다는 자리를 찾아가 부대사람들한테 사인을 확인해 보려니까 그 부대에서 하는 얘기인 즉, “이 사람은 중대장 당번병인데 군대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M16소총으로 자기 우측 가슴에 한 방 쏘고 다시 또 좌측 심장을 한 방 쏘고 누운 후 자살이 안되니까 자기 머리에 대고 한 방 또 쏘고 해서 세 방의 총을 쏜 다음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총으로 세 방씩 쏘고 죽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M16소총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 체위에 맞게 만든 총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향해서는 방아쇠가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총 한 방을 쏘아 죽었다면 이해가 간다. 그것도 머리에 쏜다면…… 그러나 심장에다 쏘고 그것도 안돼서 우측 가슴에다 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어 안죽네, 안죽으니까 내 머리에 한번 쏘?’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문사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문사인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모인 가족 한 가족 한 가족이 서른 다섯 가족이나 된다. 오늘 ‘반고문 반폭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처럼 폭력,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사건들이 밝혀지면 폭력과 고문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서른 다섯이나 되는 유가족들 중에는 지금도 죽은 자식의 뼈가루를 끌어 안은 채 아직껏 장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장례 안 지낸 분들이 이밖에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멀리 강원도에서 모여 들어 N. C. C. 인권위 그 차디찬 땅바닥에 스티로폴 한 장 깔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건만 새우잠을 자가며 또 가정생활이라는 건 모두 다 집어던진 채 64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그 한맺힌 사연을 안고 농성하는 동안 우리 유가족들은 평민·민주 양당 총재도 만나뵙고 국회의사당을 찾아갔다가 닭장차에 실린 채 국립묘지에 버려진 것도 부지기수고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미대사관 폭발물 투척사건 재판에 방청하러 갔다가 재판부가 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을 던져놓고 간 걸 우리 어머님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어머님들은 ‘사법부는 각성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전두환을 구속하라! 의문사가 웬말이냐 살인자를 처벌하라!’ 등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다 하여 박선영 어머니하고 정영관 어머니가 구속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우리 유가족은 죽은 자식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죽은 자식의 영혼을 등에 짊어지고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최선봉에 나서 싸웠다.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절규하듯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싸우면서 우는 이유는 전경들이 쏘는



취루탄이 매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들이 앞에 나서서 싸운다고 백골단이 쇠파이프와 화이버를 가지고 휘둘러서 몸에 피가 나고 멍이 들어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자기 피와 살보다 제 목숨보다 귀한 죽은 내 자식도 조국의 자식이요, 이 나라 자식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한단 말인가? 죽은 자식들의 목숨까지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부르짖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언제나 이 땅에 올 수 있던 말인가? 하며 우리 어머니들은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만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자식들을 고문하고 죽게 만든 경찰관이나 수사관은 자기 양심을 스스로 비웃지 말고 양심선 언하라. 그것이 될 리 없지만 그 길만이 우리 죽은 영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린다. 80년 임기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의문의 죽음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간들 군대에 간들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학우들이 노동현장에서 언제 저들의 타살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누가 아는가? 때문에 다시는 우리같은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총재나 이태복 선생, 김근태 선생, 권인숙 양 등 여러분들이 군부독재에 꺾박받고 또 탄압받으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한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나 언론, 심지어 인명과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재야인권단체에서조차 우리 의문사에 대해 거론조차 없었다. 전두환 일당이나 그 친인척 비리, 일해재단 비리, 권력형 경제비리 등 이런 모든 비리만이 5공비리의 전부인 양 뉴스가 되었고 온 장안이 시끄러웠다. 그렇지만 전두환 그 일당들이 저지른 그 8년 세월 중에서 진짜 잔인하고, 범죄 속에서 탄압받고 멸시받고 가장 더럽혀진 게 바로 인권이 아니겠는가? 그 인권 속에서도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한 생명, 생명들이 저들의 교살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이라는 낙인이 찍혀 수 없이 죽어만 가지 않았던가? 이 때문에 우리 의문사 가족들은 형제마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 가버린 자식이나 가족을 그리며 지금 64일

째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유가족은 너무나 외로웠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나이드신 분들이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청문회가 뭔지, 특위가 뭐하는 곳인지 어찌 알겠는가? 가난하고 나이들고 아는 것 없는 우리 유가족들의 농성에 누구하나 확실한 길을 가르쳐주거나 의논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없었다. 물론 형식적인 방문은 많이 하셨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분답게 우리 유가족과 고통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당에서조차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달라니까 당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등 마는 등 응해주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그토록 촉구하고 애원했어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특위나 청문회 등에서 우리 의문사는 의제에 끼지조차 못했다.

이런 재야인권단체들의 인명을 멸시하는 풍토 속에서 세계인권선언 40주년 기념일을 맞는 우리 유가족들은 한없는 슬픔과 비애를 느낀다. 오늘의 반고문, 반폭력 인간선언대회를 함에 있어 우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해 여기 죽은 서른 다섯명 모두가 죄지은 거라고는 민주주의의 하자는 것,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하라는 것, 그것 외친 죄밖에 더 있는가? 강제징집 1호가 정성희인데 그 학생이 1호로 사망한 이래 군대 내 모든 의문사가 강제징집된 학생들이다. 일반 의문사는 임기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생 우종원, 김성수 그 다음 노동자, 민주노조하자는 노동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서른 다섯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속된 말로 고문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병신되면 사회에 말썽이 되니까 다 죽여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동굴 속에다 집어던지고 총을 쏘서 사살하고 자살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우리들은 강력하게 의문의 죽음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64일 동안 가족들이 농성하는데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단체에서 계신 분들, 유가족들에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우선 산 사람부터 해결하자’고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본인이 좀 죄송스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여러 정당이나 인권단체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반드시 이 의문사가 밝



허지고 추위에 떠는 어머니들에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 군대내의문사

1. 정성희/81년 연세대 영독불계열에 입학하여 81년 교회시위현장에서 연행된 후 강제입영되었으나 첫 휴가 한 달 후인 1982년 7월 23일에 사망했다. 철책근무중 M16 4발을 발사하여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살의 동기가 분명치 않으며 휴가 후 귀대 직후인 6월 23일자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서술하는 등 비관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총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으로는 자살로 규정할 수 없다.

2. 이운성/81년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하여 82년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82년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당한 후 강제입영, 그 후 보안대에서 수사받고 83년 4월 30일 사망했다. 의문점은 제대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살했다는 것. 왜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과연 그것이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시신처리과정도 의문점이다.

3. 김두환/80년 고대 정경계열에 입학하여 82년 3월까지 학회에서 주동적 활동을 했다. 83년 3월 뚜렷한 혐의없이 성북서에 연행된 후 3월 18일 강제입영되어 83년 6월 18일 사망통보를 받았다. 사망 10여 일 전에 집으로 “시계 보내달라”는 편지 하고 일주일 전까지도 애인에게 편지를 했다. 사망일 저녁에 빵 누룽지를 먹는 등 평소와 변함없는 행동을 했는데 애인의 변심이라는 군수사 발표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4. 한영현/81년 한대 공대 4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82년 민속문화연구 연합회에서 활동했다. 83년 1월 야학관계로 성동서에서 조사하여 83년 4월 강제연행된 2주일 후 강제입영되었다. 83년 6월 포상휴가를 받고 83년 7월 2일



의문의 사망을 하였다. 가정파탄 비판자살이라는 군수사발표는 어려움을 딛고 건강한 생활태도를 유지해 온 그의 행적을 볼 때 그의 죽음의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없다.

5. **최은순**/81년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하여 83년 초 시위예비음모 혐의로 연행된 후 강제징집되어 83년 8월 14일 사망했다.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했으나 가족이 항의하자 타살로 번복되고 진상규명이 안된 채 사건처리가 끝났다.

6. **한희철**/79년 서울대 기계설비과에 입학하여 가톨릭학생회에서 중심적 활동을 했다. 82년 12월 30일 육군에 입대하여 83년 10월 군복무중 학생운동으로 피신중인 친구의 주민등록 발급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발각돼 보안대에서 조사, 83년 12월 11일 사망했다. 성격을 평생 소원으로 삼던 사람이 종교에서 최악시되는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범법행위로 취급된 사병의 자살임에도 성대한 영결식을 치른 점, 사망 전 동료에게 건네주었다는 유서가 본인의 필체가 아닌 타이핑된 것이라는 점 등에 의문이 있다.

7. **이승삼**/부산전문대학교 전기과 1년 재학중인 86년 12월 16일 입대. 87년 2월 2일 강원도 원주 소재 36사단 공병대에 배속되어 있던중 3월 3일 부대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음. 부대측에서 애인관계, 가정불화, 신병에서 오는 고민 등에 대해 물어본 후 자살이라고 함. 이군은 부대에 배속된 지 불과 10여 일밖에 안되었을 때 소속부대 중대장, 선임하사, 사병 등 4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가슴이 아파 숨도 제대로 못쉬고 있는 이군을 최규원 일병이 이군의 안면부를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때려 안경이 박살나고, 안경알이 한쪽눈에 박혀 있었으며 앞니 4개가 빠져달아난 상태인데 목에 총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부대측에서 주장.

8. **김용권**/83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85년 KATUSA에 입대했다. 86년 8월 민민투련 수배자 소재파악 구실로 보안대에 소환되었다. 고문을 당한 후 정신질환 치료. 87년 2월 20일 사망했다. 87년 2월 18일 미8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을 들러 부대로 떠난 후 실종되었다. 소속부대 인디안막사에서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9. **노철승**/수도방위사 33경비단 3중대 소속으로 86. 4. 19 상급자들로부터 기합 구타 등으로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 중 87. 2. 15 수방사로 월대복귀. 그 후 87. 3. 1 청와대 뒷산 31초소 근처에서 총탄 2발을 머리에 맞고 사망. 총탄 삽입구가 이마이고 총알이 나간 곳은 뒷목으로 스스로 총을 들고 쏘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체부검시 하체에 모세혈관 파열상이 심하였으며 유서가 없음. 제대 9개월을 남겨두고 특별히 자살할 이유가 없음.

10. **박필호**/당시 21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87년 1월 30일 입대한 후 87년 3월 7856부대 의무근무대에 배속된 후 3월 19일 사고로 부대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함. 부대에선 오전 6시 점호 전 화장실에서 야전잠바의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자고 일어난 후 자살할 이유가 없고 유서 등이 전혀 없다는 점, 더구나 3일 후에 가족들이 면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기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자살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목에 난 상처(줄이 감긴)가 3군데나 있고, 변기에 굵힌 자국이라는데 상처가 이미 말라 있고 얼굴 등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깨끗하였으며 가족들이 부대도착시엔 이미 피멍이 사라지게 한다는 알콜을 이용해 온 몸을 닦아 놓은 상태였다는 점 등 의문점이 있음.

11. **박상구**/87년 5월 충주소재 마재부대에서 선임하사로 복무 중 사망. 부대측에서 가난과 학력을 비판, 농약을 마시고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입에



농약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귀, 어깨 부위에 시커먼 멍자국이 있고 허벅지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타살 의문시됨.

12. 장춘근/당시 27세로 전주에서 예비군 보충교육을 받던 중 교육장에서 3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은 시체로 87년 6월 4일 발견. 장씨는 이날 오전 7시경 훈련을 받으러 간 후 8시 ~10시까지 교육을 받은 후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중대장이 술을 먹고 왔다고 뺨을 때렸더니 코피가 나더라고 함. 그러나 부검시 좌측뺨, 등뒤 좌측, 우측, 낭심부, 뇌 등에 타박상이 발견됨. 그러나 위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13. 서대일/86년 6월 의경으로 입대,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복무 중 87년 6월 사망. 경찰은 고참에게 뺨 맞고 4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가족들 투신으로 인한 상처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의혹 짙다고 주장.

14. 이이동/당시 23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2년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87년 2월 26일 경남 창원 소재 5792부대 2중대에 배속되어 교육중 동년 6월 15일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부대 당국은 일방적으로 자살하였다고 하고 임의로 화장하였음. 가족들은 경남 창녕 제39사단 헌병수사관 정찬화로부터 수사 당시 사망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압수하였던 바 M16소총으로 자살한 현장에는 M16소총이 사체 바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머리 관통부위가 자신이 직접 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제대한 소속부대원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부대에서 충정교육시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가에 대해 이군이 설명함으로 중대장이 분개하여 총을 쏘았다'는 진술을 들었음. 그밖에 의문점 16가지가 있으나 군 당국에서 수사진전이 없음.

15. 정재근/계명대 경영학과 2년 수료 후 방위병 입대. 50사단 122연대 33

경비대대 소속으로 88. 7. 25일 부대에서 퇴근 후 실종. 7. 29 경산군 금호강변 웅덩이에서 발견. 손목시계가 없고 검은 피멍이 든 타살흔적. 부검시 머리 부위에 피가 엉킨 상태이고 양쪽 허벅지에 손바닥 크기의 검은 표면이 남아 있음.

16. 허원근/83년 9월 입대. 84년 4월 철원 7사단 복무중 사망. 총기사망으로 발표, 모병장 '자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함.

17. 이승환/강원도 상지대학 경제학과 2년 재학중 87년 1월 입대하여 강원도 간성에서 근무. 87년 8월 2일 부대에서 이씨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대에 도착하니 이미 사망해 있고 사인도 모르는 채 군부대의 자살주장에 따라 사체부검에 참여치 않았음. 당시 사체에는 엉덩이 부분과 손톱에 피멍이 든 자국이 있었음.

18. 이상준/87년 신구전문대를 졸업하고 87년 3월에 청주기동대 2중대 전경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88년 8월 6일 8시에 청주시 신봉동 주공아파트 앞산 6만 6천 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높이 25m 철탑에 상의와 운동화를 벗어놓고 올라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철탑에 나무반에서 입던 팬티차림으로 무단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높이 25m 철탑에서 떨어진 시신이 어느곳 하나 부러진 데도 없으며, 감전사라고 사인을 발표했음에도 시신은 내리뜬 눈썹 하나 안타고 셋눈을 뜨고 쏘아보는 눈초리였다. 이군은 평소 모태부터 기독교인으로 자살은 금물인 것을 알고 있어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경주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소대장은 자칭 황제폐하라고 부르며 소대원들을 학대했다고 한다. 구타하다가 숨진 것을 감전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양쪽 다리와 흉부에 뜨거운 물체로 지진 흔적을 만든 것으로 의심이 간다.



---

19. 이동일/육군 7193부대 복무중 88년 9월 육군통합병원에서 사망.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 발표했으나 가슴, 명치 부근에 멍자국이 있어 타살의 의혹이 있음. 평민당 조사단 병원측으로부터 조사거부당함.

20. 이승환/23세(사망 당시) 강원도 상지대학 경제학과 2년 재학중. 군에 87년 1월 입대. 강원도 간성 소재의 소속부대로부터 이군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사망하였음. 87년 8월 2일 사망.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이군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가족들은 사인도 모르는 채 사체부검에도 참여하지 않았음. 당시 시체에는 엉덩이 부분과 손톱에 피멍이 든 자국이 있었다고 함.

21. 최우혁/84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입학하여 86년 5월 시위도중 심한 부상을 당했고 구류를 여러 차례 사는 등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87년 9월 8일 분신자살이라고 가족에게 사망통보했다. 유서도 없고 자살동기가 전혀 없다. 헌병대 조사에 의하면 자살흔적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함. 8월 말 경 고인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있는 것이 적발돼 선임하사가 보안대에 호출해 심한 힐책을 받았고 후에 이 사실을 부인했다.

22. 정연관/포항대동고를 졸업하고 86년 5월 입대하여 87년 12월 4일 부제자 투표가 있는 후 내무반에서 구타를 당해 희생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부대에서는 부제자 투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 주먹으로 두번 쳤더니 뒤로 넘어져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하나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주변 군인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구타당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사고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립묘지에 안장했음.

23. 박종근/88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졸업하고 88년 5월에 방위로

---

---

입대했다. 88년 8월 1일 화재사고에 의한 사망통보. 사망 전 중대장, 헌병대장이 보약 상납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 군수사 당국은 처음에 염세주의자의 가정비관 및 여자관계에 의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으나 후에 번복했다. 화재 사망에서 자살로 수사발표를 번복한 점, 화기에도 고통당한 흔적이 사체가 반듯이 누워있는 점, 사건 직후 헌병분대장의 불법으로 고인의 집을 수색해 간 점, 부모의 동의없이 사체를 화장한 점, 사건이 여론화되자 군수사기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점, 아직도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 일반의문사

1. **임기윤(목사)** / 부산제일교회 목사로서 감리사, 부산신학교 운영이사장, 감리교 총회 감사, 재단이사장 등 역임. 70년대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후 3일 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져 26일 사망. 혈압은 정상이고 가족들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티 가량 찢어져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음.
2. **문영수(운전자)** / 1982. 8. 19 22:30 광주서부서에 폭력사건으로 연행된 후 익일 08:00경 전날 조서를 받은 경찰관에게 신음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진 후 조서기록과 병원기록에 피해자 주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8. 22 사망 후에는 주소불명으로 처리, 전남의대 해부학교실 학생실습용으로 사용 후 화장.
3. **박관현** /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사태로 구속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 교도소에 복역중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82. 7. 8~20, 82. 9. 2~22동안 단식, 10. 4 교도소측이 징벌방에 가두고 접견금지조치로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 10. 10 건강악화로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교도소측이 데려가려 함. 10. 12 '3천만 우리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을 남김. 교도소 내에서의 고문, 폭력행위 등 전모가 드러나지 않음.
4. **우종원(서울대)** / 1985. 8 삼민투관련으로 수배중 사망소식을 듣기 바로 전날 대구시경 소속의 형사가 어머니에게 '종원이는 참 아까운 학생이다. 삼민투에 가담하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신세 망쳤다. 빨리 자수시키라'고 함. 10월 11일 23시경 영동 - 황간역 사이 경부선 열차에서 투신했다고 연락 받음. 유서의 필적이 다르고 시신의 상태로 보아 많은 의문점이 있음.

5. **김상원(노동자)** / 영등포 중앙파출소에 1986. 3. 10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의동행으로 연행된 후 앞니 6개가 부러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입원. 77일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사망함. 사건을 경찰이 은폐조작함.
6. **신호수(노동자)** / 1986. 6. 11 인천연안 가스노동자로 서울대공수사과 형사를 자칭하는 형사들이 불온물을 보여준 후 끌고감. 전남 대미산 동굴에서 사체 발견. 가매장한 후 일주일만인 6. 27 가족에게 알려주었는데 사체 목격자에 의하면 신씨의 발목이 피범벅이고 무릎에 상처가 있으며 몸 양팔과 가슴 부위가 허리띠로 감겨 있음.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하고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유서 한장 없음.
7. **김성수(서울대)** / 1986년 6월 18일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가 자취방으로 걸려온 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사체 발견. 높이 3미터 정도의 방과 제고 막혀 있고 수초가 펼쳐져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송도앞 바닷속 바위틈에서 시멘트덩이를 몸에 매단 채 발견. 신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안경, 상하의, 신발 등이 고스란히 입혀진 상태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상태.
8. **박종철(서울대)** / 1987. 1. 13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 사건이 공개화됨으로써 오히려 연행시간이 조작(전날 11:30분경이 아닌 익일 오전 8:10)되고 기타 고문의 실상(전기고문 여부 등)이 은폐된 대표적 사례.
9. **박선영(서울교대)** / 1987. 2. 20 부엌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유서 등을 가져가고 아버지가 공무원임을 악용,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 정태수 서울교대학장이 '선영이는 씨름활동을 하다 남자 때문에 자살했다'고 죽음을 모독.



10. 이태춘/86년 동아대 무역학과 졸. 태광고무산업 무역부 근무. 87년 6월 18일 7시경 퇴근하여 부친이 입원해 있는 춘해병원으로 병문안을 가던중 좌천동 고가다리에서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1m난간 아래로 추락, 재해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밤 11시경 봉생병원으로 이송되어 19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신경외과 김호경 과장의 집도로 뇌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8시 30분경 사망.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가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묻자 “최, 최, ……”라는 말을 한 후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함. 우측뇌가 손상되었을 뿐 다른 부위에 외상은 없었고, 머리가 부어 있었으며 양복에는 최루가스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당국은 추락사라고만 발표.

11. 고정희(연세대)/부정선거를 알리는 투서를 백악관, 미대사관 등에 계속해 오며 활동하다 1988. 3 서초경찰서 대공과 연행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됨. 1988. 5. 13 정신병동에서 투신했다고 하나 자살동기나 유서 등이 전혀 없고 증인들 진술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현장상황 등이 납득이 안 감.

12. 장영식/87년 7월 구로경찰서에서 의경 근무중 사망. 사망원인, 책임소재 밝히지 않은 채 사건 처리.

13. 정경식/대우중공업 창원 2공장 근로자로 실종 당시 28세로 노조지부장 선거에 깊이 관여했던 정씨는 1987년 6월 8일 실종된 후 12월 12일 창원 관음사 뒷편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경찰과 가족, 재야측에서 사체 조작 여부를 두고 한동안 시비가 있었음. 그후 88년 3월 정씨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서 찾아 경찰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가족들은 정씨가 목에 끈을 맬 수 없는 위치에서 묶었으며, 또한 끈이 묶인 나무의 표면이 다른 나무가지와 똑같은 것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I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

세계인권 선언 40주년을 맞아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선언하는 이때, 우리는 “반고문, 반폭력 인간선언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슬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일제하에서는 물론,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고문, 폭력이 집권자들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히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오늘까지 끝이지 않은 고문, 폭력을 고발하며, 민중의 힘으로 이를 추방할 것을 결의한다. 제5공화국은 각종 정치비리, 부정부패, 언론조작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금수보다 못한 사회로 전락시킨 인간비리정권이었다.

오늘 우리는 제 5 공화국이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인사들에게 가한 고문·폭력의 사례를 다시 들으면서 분노와 함께 인권회복의 결의를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

1. 전세계는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유엔 인권규약A, B를 선언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발표 40년이 지난 지금껏 정부는 가입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정부가 민주화외의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이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2. 국회는 그동안 이땅의 양심과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며, 고통으로 물아온 각종 악법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노동악법, 농민악법 등을 폐지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적극적 입법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분단과 독재라는 민족적, 정치적 모순으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사상범, 정치범들이 사형제도에 의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음을 보아왔다. 이에 우리는 나라에서 정치범사형제도를 철폐할 것과 아울러 나아가 모든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금년 성탄절을 기해 정부가 양심수를 대폭석방, 사면, 복권하고 수배자 해제 등의 조치를 위한 일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차제에 우리는 민족의 분단현실과 남·북냉전, 대결 시대의 부산물로 고통당하는 모든 간첩죄명의 인사들과, 각종의 민생사범으로 간혀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확대하여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지난 불행했던 5공화국시대에 의문사의 희생자들이 있었음을 애도하면서, 일체의 의문사들이 규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과, 죽은 님과 비통한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6. 오늘 우리는 반고문, 반폭력 인간선언을 함에 이르러, 앞으로 이땅에 다시는 고문·폭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 불법연행, 연금, 도청, 검열, 감시 등 일체의 인권침해를 시민적 결의로 추방할 것을 선언한다.

1988년 12월 19일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자료 ②

유가족 농성투쟁 경과보고

1988년 10월 17일 제 5 공화국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 당시 시작된 국정감사기간 시간동안 5공화국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회 내에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신호수, 우종원, 김성수 등 몇명으로부터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투쟁은 시일이 흐르면서 현재 35명에 이르고 있다.

117일째(2월 10일 현재) 계속된 장기간의 농성투쟁 기간동안 실시한 내용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나 편의상 3가지 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회의와의 교섭과정

❖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의 만행이 대중매체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에 비해 의문사는 전국 각처 외진 곳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당가족들이 개별적 호소와 항의만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의문사 진상규명의 선결작업은 대국민 여론형성이 주요하였다.

- 주요한 국민홍보 사업과 연대투쟁 참여 일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23일: 대학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 집회에 참석하여 의문사 진상규명 호소.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5일, 11월 12일 전·이 구속처벌을 위한 투쟁에 참여.

10월 30일: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 가을대동제 참여.

11월 9일: 종로3가 전철역 "노동운동 탄압규탄집회"

11월 13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 집회참여.

12월 14일: 백담사에서 민가협·유가협 전·이 구속촉구요구.

12월 24 ~ 26일: 과천종합청사농성.

- 독자적인 의문사 집회로는 11월 12일 5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대회" 개최 4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촛불행진을 하면서 명동입구까지 행진.

12월 3일: "삼청교육대 및 의문사 보고대회"를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 그밖에 종로5가 명동 등 도심일대와 외대·경희대·연세대·숭실대·중앙대·동국대·고려대 등에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홍보했다.

❖ 국회 내에서의 진행과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내부투쟁의 힘이 미약한 이유로 해서 5공특위 내의 인권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평민·민주 등 아



당의 태도는 자기당의 이해득실을 먼저 사고하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한계로 인해 미지근한 태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5공특위내의 3소위에서 이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19일; 국회 원내총무 방문하여 국회의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답장자에 실려 동작동에 버려짐.

10월21일; 양당총재(김대중·김영삼)집방문 농성.

10월22일; 공화당 총재방문.

10월24일; 평민 부총재 방문.

10월29일; 국회의사당에서 원내총무 면담요구하다 동작동에 버려짐.

11월4~5일; 평민·민주 양당 총재 집에 가서 두가지 사항 합의

- ① 양당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② 5공특위하에서 다루어 줄것.

이 과정에서 정성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12월 1일; 평민당 총재 집에 방문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에 확실히 앞장설 것을 요구. 현재는 양당의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사건 조사에 들어갔고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이후 의문사를 다루주겠다고 하여 촉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 11월14일 재판 방청 도중 연행된 임분이·오영자 유가족의 옥중투쟁 및 석방투쟁.  
- 11월14일 "미대사관 사제 폭탄 투척사건"방청 도중 법정소란 이유로 구속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학생들은 재판을 거부하여 퇴장 당하였는데 재판부는 미리 만들어진 판결문을 낭독하여 여기에 분노한 민가협 어머니들과 유가족들이 항의하였다. 이에 조선·동아·중앙동의 여론매체를 이용하여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불순세력인양 매도하여 내분 어머니(이태춘·우종원·김성수·정경식)가 7~10일의 구류를 살고 두 어머니(정연관·박선영)가 구속되었다.

11월14일;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7명이 지하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단식, 항의하면서 모든 조사에 불응하며 투쟁하였고 같은 지하 유치장에서 20여 명의 유가족이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하다 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

11월15~16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친 전경들과 대치하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을 새웠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목비권을 행사하자 "네 년이 주둥이지" "에미년이 이러니 자식이 죽었지" "잘도 죽었다" 등의 폭언과 머리채

를 휘어잡고 손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이를 때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1월21일; 담당 검사인 조용진·이송왕을 방문하여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담당판사(박영무. 합의14부)가 거부하여 검사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법부독립의 현실태를 여실히 보았다.

12월 1일; 박선영, 정연관 두 유가족 구속 기소됨.

12월14일; 계훈계, 문익환, 윤용, 조무하씨 등 재야인사들이 두 유가족과 특별 면회 실시. 이때 오영자 어머니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군부독제에 항거하는 내용(전두환, 이순자를 구속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의 혈서를 써서 전달하려다 교도관에게 압수당하였다.

오영자, 임분이 어머니는 두 차례의 단식을 하였는데

1차단식;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12일동안)

2차단식; 12월11일부터 현재(2월11일)까지이다.

쇠약해진 몸으로 단식까지 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있으며 오영자 어머니의 경우 유서까지 준비해 놓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땅의 민주화가 앞당겨 졌으면 한다는 말을 면회자에게 전달하였다.

-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검찰청, 법원 등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이틀에 한번 정도, 지난 약 세달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하였으며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겨울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5,000여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 편집후기

□ 인권위원회는 자료집 제 1 권으로 『인권수호지침』을 내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해를 넘기면서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지 못한 채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을 해야 하는 자금의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5공화국 출범 후 9명의 연사가 개인적으로 당했던 갖가지의 고문을 폭로하는 이야기도 눈물겨웠지만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100일이 넘게 본위원회 사무실에서 증거가 확보된 35명의 의문사를 밝히려고 유가족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다. 하루 속히 이들 의문사의 진상이 밝혀져 이 땅에서의 고문·폭력이 근절되는 데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

이 소책자에는 첫번째로 9명의 증언을 실었으며, 두번째로는 의문사를 당한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끝으로 12월 19일 대회의 「성명서」와 의문사 가족 농성일지를 실었다. 이 작은 자료집을 엮어 정의와 평화의 강물 위에 띄워보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무국장 : 김동완)

김동완  
45.5.2